내달 5일 22개 시·군 공중보건의 33% 복무 만료

전남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

신규 인력 4월말쯤 배치
순환 근무 등 대책 마련

다음달 5일 복무 기간이 끝나는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신규 인력 배치가 늦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달 가량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729명 가운데 32.6%에 달하는 238명이 복무 기간 만료로 오는 4월 5일 자리를 비우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은 4월 말께나 배치될 예정이어서 최소 3주 이상 농어촌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4주간인 공중보건의의 훈련기간 종료 시기를 군의관(8주)과 맞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내년까지는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보건지소 등을 권역별로 묶어 대체 및 오전·오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조정으로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도기 빚기 물레 체험' 하세요

영암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가 '도기 빚기 물레 체험'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도기 빚기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동안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물레 체험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등 기초 실기를 중심으로 도예문화 전반에 대한 이론도 교육한다. 문의 (061)470-2566(www.gurim.org)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농업인 양육비 지원대상
광산구, 6세 까지 확대

광산구(청장 전갑길)가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광산구는 지난해까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만㎡미만 농·어가의 만 5세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 또한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확대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새농촌 새농협 경영혁신 토론회

농협 완도군지부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지부장 정동한)는 13일 군지부 회의실에서 농협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운동인 '새농촌 새농협운동' 경영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지역의 경제·금융·문화·복지의 중심이 되는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한 지부장은 "올해는 수입쌀 시판과 한미 FTA협상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을 위한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고희' 맞은 보성강 수력발전소

남한 최초… 연 2,100만kw 발전 전력·농업용수 공급

1937년 건설된 보성군 득량면의 보성강 수력발전소가 올해로 70년이 됐다. 겸백면에서 끌어오는 발전소 수로(왼쪽)와 현재의 발전소.

남한지역 최초 발전소인 보성강 수력발전소가 건설 70주년을 맞았다.

보성강 수력발전소는 일제시대인 지난 1937년 3월22일 보성군 득량면의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의 물길을 막아 건설된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고희(古稀)'가 된 셈이며 현존하는 남한지역 최고령 발전소다.

한국전쟁 중 북한군이 두 달여 점령하는 기간 일부 시설이 파괴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던 이 발전소는 수복 뒤 복구 공사가 이뤄져 1962년 광주와 목포에 발전소가 가동될 때까지 호남지역의 유일한 전력 공급원이었다.

이 발전소는 1988년부터 2년 간 발전기 교체 등 설비를 개선해 현재도 연간 2천100만kw의 발전을 하는 것은 물론, 보성군 득량만 간척지와 농토에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발전량으로 보면 소규모지만 연간 2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를 갖는데다 지역 전력과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전력사의 산증인 격인 보성강 수력발전소 건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이중재 사장과 정종해 보성군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
'덤프배정' 놓고 양대 노총 마찰

도로 개설공사의 덤프트럭 작업차량 운행비율을 둘러싼 다툼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세력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광주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에 민주노총 산하 덤프연대 광주전남지부가 소속 조합원 차량들의 투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덤프연대는 S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차량 20여대 중 민주노총 소속 차량이 5, 6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한국노총 소속 작업차량 숫자와 동등하게 맞춰 줄 것과 운송료 10%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덤프연대는 전날 S건설측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하자 덤프트럭을 이용해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려다 다음날 다시 만나도록 한 광산구청의 중재로 차량시위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덤프연합회 광주·전남지회는 "덤프연대가 생존권을 건드리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덤프연합회도 전날 광주 광산구 운수동 S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100여명을 참석시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규모를 축소, 자신들의 의견만 전달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새 얼 굴

"노사 안정·고용 서비스 지원 주력"

유 병 한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장

"지역노사관계 안정과 고용 서비스지원에 전력투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동청을 만들겠습니다"

신임 유병한(53)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노·사 분규 해결 및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전남 서부지역에 신노사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광산 출신인 유 지청장은 익산지청 근로감독과장과 서울관악지청 관리과장, 광주지방노동청 관리과장, 익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